80세 할머니와 결혼하는 35세 남성 "우리 사랑은 진실"

80세 영국 할머니가 무려 45세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35세 이집트 남성과 결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국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 남성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연의 주인공인 모하메드 아메드 이브리함은 "그녀와의 사랑은 진실" 이라며 "나의 엄마보다 20살이 많은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사람의 눈을 멀게한다. 사랑에 빠지면 그녀의 나이나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고 항변했다.

사연은 이렇다. 두 사람은 페이스북에서 만나 사랑을 속삭인 후 지난해 11월 할머니가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 카이로를 방문했다. 그는 "공항에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았다. 그녀를 만난 나는 행운아" 라며 첫만남을 설명했다.

그들은 만나지 몇 시간 만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은 서구 여성은 이집트 남성과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결혼식에는 이브라함의 부모님과 친구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비공식 결혼을 올린 이 커플은 4일 동안 카이로를 여행하며 신혼여행을 즐겼다. 할머니는 "다시 처녀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며 "너무나 사랑스럽고 로맨틱한 경험이었다." 고 밝혔다.

이브라함은 그가 할머니의 재산과 영국 국적을 노리고 결혼 한다는 비난에 "나는 그녀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어디에 살든지 신경쓰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이리스 그녀뿐이다. 그녀와 함께라면 세상 어디에서든지 상관없다." 고 말했다. 또 "아이리스의 두 아들이 내가 너무 젊고 그녀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만난다면 내가 얼마나 그들의 엄마를 사랑하는지 알 것이며, 그들도 나 같은 의붓아버지를 만난 것을 좋아하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그는 영국으로 방문하기로 했지만 경비부족으로 관광비자가 발급이 안되었다. 할머니가 카이로에 방문할 당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휴가를 신청했지만 사장이 휴가를 허락하지 않자 아예 용접공 일을 그만두고 현재는 무직이지만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다.

카이로 방문시 서류미비로 공식적인 결혼을 할 수 없었던 할머니는 다음 달에 카이로를 다시 방문해 공식적인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합법 vs 불법 … 토플리스 논란

여름이 한창인 아르헨티나에서 또 토플리스 논란이 불거졌다.

1일 아르헨티나 리오네그로주 그루타스 해수욕장에서 가슴을 들어낸 채 차를 마시는 하는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지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문제의 여성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비키니 하의만 입고 남미, 특히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 국민적 사랑을 받는 전통차인 마테를 마시고 있었다.

경찰은 여성에게 즉시 가슴을 가려달라고 했지만 여성은 거부했다. 여성은 "토플리스로 차를 마시며 일광욕을 즐기고 있을 뿐" 이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왜 간섭하느냐?" 고 항의했다.

한동안 실랑이 계속된 가운데 경찰이 "거부하면 연행하겠다." 고 경고하자 여성은 결국 비키니 상의를 입었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토플리스에 찬성하는 쪽에선 금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 잘못을 지적한다.

그루타스의 전 시의원이자 시장후보였던 정치인 호르헤 로페스는 "가슴 노출에 대해선 금지조례가 없다." 면서 "토플리스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면서 "금지되지 않은 건 곧 허용된 것이라는 일반적인 법률원칙을 적용하면 공권력이 토플리스를 막는 건 공권력 남용" 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풍기문란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처음엔 경고를 하고, 거부하면 풍기문란으로 연행이 가능하다." 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엔 문제가 없다." 고 했다.

야생 원숭이 내쫓으려고 '곰 탈' 쓴 주민들

마을을 점령한 야생 원숭이 2,000여 마리를 마을에서 쫓아내기 위해 기발한 방법을 동원한 주민들이 관심을 모았다.

현지 언론인 '타임스오브인디아' 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의 한 마을 주민들은 평소 마을 안팎을 제집 드나들 듯 돌아다니는 야생 원숭이 2,000여 마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야생 원숭이들은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망가뜨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시도때도 없이 주민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야생 원숭이들을 물리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그러던 중 마을 대표는 친척으로부터 곰을 두려워하는 원숭이의 습성을 이용해보라는 말을 듣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부터 '비교적' 실감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 털로 덮여있고,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있는 형태의 곰인형 탈 3세트를 구입했다. 그리고 주민 중 두 사람에게 곰인형 탈을 입히고 괴성을 지르게 했다. 효과는 예상 밖이었다. 곰인형 탈을 쓴 사람을 진짜 곰을 착각한 원숭이들이 재빠르게 마을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곰의 탈을 쓰고 야생 원숭이를 내쫓은 이 마을의 사례는 현지 야생동물 및 산림 전문가들에게까지 전해졌다. 당국은 이 마을 사례를 직접 확인한 뒤 효과가 입증될 경우 다른 마을에도 추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인도 남서부 카르나타카 주의 한 마을 주민이 굶주린 야생 원숭이들로부터 자신의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시도한 방법이 화제를 모았다. 이 주민은 자신의 반려견에 호랑이 무늬를 그려 '위장' 을 시켜 농작지를 돌아다니게 했고, 원숭이들이 이를 실제 호랑이로 착각해 농작물 피해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